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린양의 피가 가득한 레위기의 제사들 -복음으로 여는 레위기- 레위기 17:11, 히브리서 9:11-12

정윤돈 목사님

* 레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 히9:11-12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후대를 위해, 내가 있는 현장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해답을 찾아내고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절대미션과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와 증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창세가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도 부활과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단지 영생의 길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시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의 길을 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더라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 중 몇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영적상태를 한 번 점검해봐야 한다. 구원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왜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오직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다. 죄를 알지 못한 분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옥에 다녀오셨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의미로 지옥에서 돌아오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뜻이다. 아직 옥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죄의 대가가 남아있다는 말이다. 그게 십자가이고 부활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삼에 주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고 믿기는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없다. 구원은 받았는데 정신적 문제, 근심, 염려,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또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다. 매일 십자가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게 풍성하게 역사하셔야 한다. 십자가는 용서다. 하나님이 극악무도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오시고 용서하시고 대신해 죽으시고 해결하셨다. 우리는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백 데나리온은 현재 한화 천만 원 정도로,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일만 달란트는 제가 chatGPT에게 물어보니까 금이 약 3백 만kg, 한화 50조 정도라고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았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풍성히 모시기 바란다. 제가 마약중독자를 자주 만나는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들은 돈 액수에 대해 짓는 죄가 다르다며 돈을 싫어하시더라.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뭐든지 형통해야 한다. 방법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을 흘린 적이 있는가? 그래서 어려움은 집중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어떤 분은 3분,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반면 어떤 분은 십자가 목상을 1시간씩 하신다. 수백 가지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절함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또 깊이 있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야. 마지막으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백배의 응답이 있다.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야 우리와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어떤 분은 늘 귀신이 보인다고 하시는데 24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게 축복이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주께 다 맡기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누려라. 그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바꾸는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다. 손도 만지고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사람마다 복음을 받는 계기들이 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 그게 축복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주장했던 이론에는 기절설과 도난설, 환상설이 있다. ① 기절설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고 일어나 도망쳤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기절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활을 증명해 주는 주장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죽으면 혈액이 혈장과 혈구로 나뉘어진다. 피도 나오고 물은 것도 나오게 된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셨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만약 정말 기절해서 눈을 떴다고 하더라도 온 몸은 세마포에 감겨있었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있었으며 걸을 수 없어 동굴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 기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굴은 약 6톤의 돌로 막혀 있었다. 만약 동굴의 돌을 밀고 나왔다 하더라도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잡혔을 것이다.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사망했으며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셨다. ② 그리고 도난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 숨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 50일 이후부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열 명이 순교를 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평생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로마 정부에서는 시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③ 환상설도 있었다. 환상설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못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있었던 제자들은 펍박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중요한 건 부활 후 40일이다. 예수님은 40일간 회복시키시고 전도하셨다. 예수님을 떠나고 시험 들고 상처 입은 제자들, 예비된 제자들에게 가서서 캠프하셨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부활 후 50일 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15나라 선교의 문이 열렸다. 우리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다락방 해라, 팀사역 해라, 미션홈 해라, 전문교회, 지교회 해라’라고 가르친 게 아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잘 알고 부활을 확실히 믿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천 제자, 5천 제자, 로마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전도하신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단과 세계 교회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셨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영적문제나 경제문제, 삶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리키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백배의 응답을 받을 부분이다. 그 문제에 집중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지금 구약시

대라면 장로님들은 소 한 마리씩, 여러분은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지금의 예배와 복음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다. 과거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로 변했고 성막은 성전으로, 카타콤, 현장 교회로 변했다.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변한다. 신앙과 찬양의 스타일도 계속 변한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방법과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모든 각종 제사들과 그 제사의 방법은 복음과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1) 제사제도를 보면,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다. ① 번제는 원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번제의 방법은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었다. ② 소제는 곡물제사로, 고운 가루를 드렸다. 소제는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제사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부셔서 고운 가루와 같이 되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다. 내가 살아서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된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완전히 뺏아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 부서지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 ③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제도였다. 화목제의 종류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었는데, 이 제사는 지금의 감사헌금과 서원하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무조건적인 감사의 예물을 상징하고 있다. 서원제는 목표를 가지고, 낙헌제는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속죄제는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 받기 위한 제사이다.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신분이 높을수록 비싼 제물을 드리고 낮을수록 싼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리더자의 죄는 더 크다. ⑤ 속건제는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한 해결과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제사였다. 그래서 속건제는 제사와 함께 화해와 배상이 필요했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도 화해와 배상이 함께 요구된다.

(2)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다. 제사의 방법은 지금의 예배방법이다. ① 화제는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이다. 이것은 부흥회, 통성기도와 같은 뜨거운 예배를 상징한다. ②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것이다. 몸찬양과 같은 예배이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다. ③ 거제는 두 손으로 제물을 들고 드리는 제사이다. 이는 거룩한 예배를 상징한다. 나의 절대불가능을 고백하는 것이다. ④ 전제는 피를 뿌리는 제사의 방법이다. 이것은 복음중심의 예배, 피가 가득한 예배, 영접메시지를 전하는 예배를 상징하고 있다. 은혜가 가득한 예배를 상징한다.

현대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와 절기제도가 예배로 변화되었다. 지금은 WRC, 선교대회,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예배, 구역예배, 지교회예배 등으로 변화되었다. 지금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예배에 성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란다.

결론이다. 오직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온 세계에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성찬식과 세례를 베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굳게 잡고 평생 승리하는 믿음의 길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